



Atomic Bomb Dome by Jan Letzel and modern Hiroshima
資料 : Wikimedia Commons

유엔과 히로시마시민이 핵없는 세계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다!

【유엔 IDN=라메슈.자우라】

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군축위원회의 2 주째의 심의가 다음날 시작되려는 순간 핵무기폐기 일본 NGO 시민연락회와 핵무기폐기를 향한 히로시마회가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[핵없는세계로의 전망은 아직까지 열리질 않고있다.]라고 결론짓고있다.

4 월 10 일 오후 뉴욕으로부터 7000 마일(11230 키로)떨어진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시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이 공동성명[핵없는 세계를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시민의 성명]은 [지구상에는 지금현재 15000 발이상의 핵탄두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고 핵없는세계로의 전망은 열리질않고있다. 오히려 핵확산 조짐이 부추켜져 빈곤,불평등,환경파괴와 폭력의 연쇄가 세계각지에서 갖은방법으로 인도적인 위기를 가져오고있다]라고 전했다.이성명은 히로시마에서 G7 외무장관회의에 참가하고있는 각국정부 및 유엔군축 담당국에 대하여 발표와 동시에 발송되었다.

공동성명은 G7 각국정부에 대하여[(금번의 외무장관회의에서의 논의는){핵과인류는 공존할수없다} 라고하는 70 년전의 핵무기 사용에 의하여 가져오게된 역사상 초유의 비인도적인 경험으로부터 히로시마,나가사키가 얻은교훈을 근거로 한것이 아니면 안된다]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다.

이러한 심정과 견해는 유엔군축위원회의 일반 토론연설에 있어서 몇가지의 발언에도 반영되었다. 동위원회의 오도 데뷔위원장(바누아투공화국 유엔대사)는 [모든국가간의 분쟁과 대립이 계속되는가운데 테러와 사이버공격이라는 새로운 지구규모의 난제들이 심각한 지경에 달하고있다.] 라고 지적한위에 [다국간의 군축회의에 있어서도 각국이 실질적인 논의를 피하는가운데 쇠퇴와 암운의 전조가 보이고있다.] 라고 전했다. 2015년 핵불확산조약(NPT) 운영 검토회의는 실질적인 최종문서를 채택하지못한 상태로 폐막되었다.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모든 유엔가맹국이 참가하는(총회 보조기관) 유엔 군축위원회는 2016년의 위원회 회기(4월 4일~22일)를 통하여 가맹국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함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수있는것이 기대되고있다.



Ambassador Odo Tevi, Chairperson of UNDC 資料 : UN Photo

김 원수유엔군축담당 상급대표대행은 [유엔군축위원회는 다국간 군축 교섭기관의 마비상태와 의견대립이 심각화되는가운데 금년도의 회기도 중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다.]라고 말했다.

김상급대표대행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(CTBT) 이(여전히 8 개국에서명,비준을 하지아니하는 바람에) 발효를 할수가없는 문제와 제네바 군축회의 에있어서의 논의가 오랫동안 정체되어있는 문제를 인용하면서 [작년의 NPT 운영검토회의 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(비핵보유국의) 실망감은 어느누구에게도 확실히 비춰졌습니다.]라고 말했다.



Mr. Kim Won-soo , Under Secretary-General and High Representative for Disarmament Affairs

김 상급대표대행은 또한,[핵군축과 핵불확산에 관하여 해야할일은 산재해있습니다,] 이런 11 개월간에(핵군축의 진행에관한) 각국의 견해는 양극화되어 평행선을 끌어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제네바 군축회의의 제 2 회기(5월 16일~7월 1일)가 개막되어 효과적인 법적조치에관한 교섭개시를 목표를한 대전이 재개됩니다.]라고 지적을 한위에 [(현재 회기중의) 유엔 군축위원회는 계속해서 비할데없는 독자적인 역할을 유지하고있습니다. 각가맹국에는 이위원회의 장을 활용하여 핵무기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여 건설적인 논의를 크게 해나가길 희망한다.]라고 전했다.

김상급대행의 지적은 1999년이래 제네바 군축회의에 있어서 논의의 정체를 타파하고 이런



資料 : Official photography of the 2016 Nuclear Security Summit

세계유일의 다국간 군축교섭기관의 유효성을 부활시킬 필요성을 호소해왔다. 카이랏 아브라후마노프 카자흐스탄 유엔대사의 노리는바와 일치하는 상태였다. 아브라후마노프대사는 [제네바 군축회의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20 년간에 걸쳐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여 오지 못했다.] 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[보다안전하고 안심감이가는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대담하고 보다더 혁신적인 조치를 통하여 현재의 정체상황이 곧 변화를 맞이하게 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]라고 전하였다.

핵무기가 국가나 비국가주체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위협이 오늘날의 인류가 직면하고있는 최대의 과제거리라고 생각을해보면 핵무기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기회를 이용 하지아니하면 안된다.그때에 국제적 핵안전보장 구조를 강화 및 국제지침의 작성에있어서 국제원자력기관(IAEA) 의 중요한 책임과 중심적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있다.

IAEA 가 핵안전보장을 확보하려고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끌어온 공적은 평가 되어져야한다. 한편,일련의 핵안전보장은 IAEA 의 활동을 지원하여 이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. 카자흐스탄의 누르스루탄 나자르 바예흐 대통령은 이러한 생각을 염두하여 처음부터 4 회까지 모든 수뇌급회담 (워싱턴,헤이그,서울,그리고 3 월 31 일부터 4 월 1 일에 걸쳐서 다시금 워싱턴)에 참석하여왔다. 동 대통령은 일련의 수뇌급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실행으로 옮길때 세계의 핵 안전보장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수있다고 확신하고있다.

아브라흐 마노흐대사는 [나자르바예흐 대통령이 제 4 회 수뇌급회담에서 발표한 성명중에서 가장중요한것중의 하나로[일련의 핵안전보장 수뇌급회담의 개최에의해 상당한 전진이 보였지만 공동성명에서 불거진 모든 목적에 대하여는 충분히 실행되어왔다고는 말할수없다.]라는 견해가 있습니다.]라고 전했다.

[따라서, 핵보장안전상의 위협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하여 수뇌급회담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. 여기에 카자흐스탄은 제 4 회 수뇌급회담에 있어서[성명문;세계,21 세기]라고 명명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.]

라고 나자르바예흐 대통령은 말했다.카자흐스탄은 이문서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만한 중대한 견해(전쟁에 승자는없고 만약,국제사회가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향한 협력으로 전진할수가 없다면 언제인가는 핵무기가 사용되어 인류가 멸망한다.) 와 함께 모든국가가 참가하여 핵과 전쟁이없는 세계를 실현하기위한 방안을 기록하고있다.



H.E. Mr. Kairat Abdrakhmanov,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United Nations

나자르바예흐 대통령은 작년 9 월의 제 70 회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였을때 각국에 대하여 21 세기의 인류의 최대의 목표로써 핵무기없는 세계를 구축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.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35 개국과 공동제출한 [핵무기없는 세계의 달성에관한 보편적선언]에관한 결의안(70/57 호) 는 133 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작년 12 월 8 일에 채택되었다. 여기에는 핵군축에관한 기본원칙과 목적이 기록되어있고 모든핵무기를 금지하고 폐기하기위한 법적구속력을 갖을 국제문서의 채택과 핵군축을 목적으로한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확립등 대담한 조치를 갖을것을 권고하였다.

카자흐스탄은 핵군축에관한 다국간의 교섭프로세스를 전진시키기위하여 공개작업부회(OEWG)의 설립을 지지하여왔다. [우리들에 있어서 OEWG 는 제네바 군축회의와 유엔군축위원회에있어서 대변할만한것은 없습니다.그러나 OEWG 에는 유엔가맹국의 압도적다수의 지지가있어 그가능성은 무시할수없을것이다. 우리들은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OEWG 에 있어서의 대화프로세스(제 2 회기는 5 월 2 일~13 일)

에 참가하도록 권고하고있습니다.] 라고 아브라흐마노프 대사는 전했다.

이러한 카자흐스탄과 같은 견해는 현재 회기중의 유엔 군축위원회에 있어서의 수개국의 대표자의 발언중에서도 인정할수가있었다. 재 제네바 국제기관 인도정부 대행부의 벤카테슈 베아르마씨는 스스로의 입장을 비동맹운동과 겹친후에 [(유엔)군축위원회가 현재 직면하고있는 과제는 다국간협약에 노력을 주입시킬[정치적인 의사]가 각국에 결핍된 것이 원인입니다.]라고전했다. 제 4 회 핵보장안전 수뇌급회의에 있어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수상 은 인도가 핵군축에관하여 시사한점을 강조하였다.

[사실 핵안보장은 지속적으로 인도정부의 우선과제로 되어가겠지요. 인도는 또한, 핵군축에 관하여 예외는 설정을 하지아니하고 기한을 정하여 달성한다는 방법을 지지하고있다.]라고 베아르마 대사는 전했다.

베아르마대사는 핵군축을 향한 교섭에있어서 논의의 격차를 매꿀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제네바 군축회의의 제 2 기회기에서는 핵군축조약에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있다. 이에관하여 베아르마대사는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향한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합의를 창출시키고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[핵무기없는 세계의 달성에관한 보편적선언] 등의 국제적인노력을 지지하고있다.



Ambassador Venkatesh Varma
資料 : Ministry of External Affairs

NUCLEAR-WEAPON-FREE AREAS

Demarcation of nuclear-weapon free zones, nuclear-weapon free status and nuclear-weapon free geographical regions

베아르마대사는 또한, 신뢰 양성책에관하여 [단계적인프로세스는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수있는 수위로 전개 하여나가지않으면 안된다.]라고 지적을하고 특히, [인도정부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핵군축에관한 (유엔군축) 위원회의 의제항목이나 모 국제사회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여 간다는것에 도움이되는 제 3 의 의제가 있다고한다면 그것에관한 논의를 막을방법은 없습니다.]라고 말했다.

아브라흐마노프대사는 또한, 비핵무기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 현재 비핵무기지대는 남반구의 모두를 포함하고있고 비핵무기지대에 가맹하고있는 나라들은 116 개국이 넘어서서 유엔가맹국의 다반수를 차지하고있다.

[우리들은 지금부터도 비핵무기지대의 확대 특히 중동 비대량 파괴 무기지대의 창출을 지지한다.] [우리들은 비핵무기지대의 대표가 모이는 연차회합을 뉴욕에서 개최한다는 제안을 지지합니다. 핵보유 5 개국이 2014 년에 서명한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(CANWFZ)의 협정서 에관하여는 영국,중국,러시아,프랑스는 이미,비준수속을 끝내고있어 미국에 의한 조기에 비준수속을 완료하기를 기대하고있다.] 라고 아브라흐마노프 대사는 전했다. (04.11.2016) INPS Japan/ IDN-

InDepth News



TOWARD A NUCLEAR FREE WORLD

